

안녕하세요. 카카오 대표이사 정신아입니다.

주식회사 카카오의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주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주주총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2025년 카카오의 사업 성과와 2026년 주요 사업 계획,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는 지난 1년간 중장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그룹 역량의 밀도를 높이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147개에 달하던 계열사를 94개로 재편하면서 경영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이와 함께, 핵심 자산으로 정의한 카카오톡과 AI에서 카카오만의 성공 방정식을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였고, 긍정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내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를 정비하는 과정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올해는 구조를 정비하는 단계를 넘어, AI와 카카오톡에 집중한, 건강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기조로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AI 사업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카나나 인 카카오톡>과 <ChatGPT for Kakao>를 공개하며, 이용자들이 Agentic AI와 상호 작용하는 접점을 카카오톡 내에 마련했습니다.

올해 카카오는 유의미한 규모의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에서 AI 서비스를 매일 사용하고, AI 에이전트를 통해 일상에 보다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접점을 확대해가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올해 연말까지, PlayMCP와 에이전트 빌더를 통해 수많은 외부 파트너들이 카카오의 AI 생태계에 연결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카카오가 강력하게 보유한 해자인 '대화 맥락'을 출발점으로하여, 차별화된 Agentic AI의 초기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가 구현하고 있는 Agentic AI는 각각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기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실제 흐름을 따라 여러 작업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카카오가 모바일 시대에 메시징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일상을 연결하며 새로운 사용 방식을 만들었던 것처럼, AI 시대에서도 사용자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모든 순간을 연결해가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서비스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AI가 그 흐름을 이해하고 돕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술을 앞세우기보다, 사용자의 수고로움을 줄이고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카카오의 또 하나의 핵심 사업이자 가장 강력한 자산인 '카카오톡'은 이제 대화를 주고 받는 메신저를 넘어 새로운 플랫폼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트래픽은 작년 하반기 일 평균 체류시간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 처음으로 유의미하게 반등했습니다. 특히 아직 초기 단계인 AI 서비스가 이용자 체류시간을 증가시키는 핵심 동력임을 확인한 만큼, 기존에 약속 드린 카카오톡의 일 평균 체류시간 20% 확대 목표는 충분히 가시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카카오톡 트래픽의 변화와 성장은 지난 4분기부터 광고 사업의 성장 재가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룹 내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유한 특 비즈의 구조적인 개선을 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러한 성장의 결실을 주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배당 총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기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제31기 총회에서 주주 여러분의 의결을 통해 2025년 회계연도의 배당금 총액을 전년 대비 10% 확대하고,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절반 이상을 소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제31기 주주총회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주식발행초과금 일천억 원을 감액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60만 주주 여러분들께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카카오그룹은 주주가치 제고와 사회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 중심의 책임 경영을 변함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보상 체계를 주주 이익과 밀접하게 연동하여 운영함으로써, 기업가치 상승이 곧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에도 반영되는 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대표이사로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매 반기 1억 원 규모의 카카오 주식을 장내에서 주기적으로 매수하면서, 주주 여러분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CFO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또한 카카오 주식을 장내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주주 중심의 책임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카카오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연결 매출 8조 원을 돌파하고, 역대 최고인 7,32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전년 대비 3% 포인트 개선된 9%를 달성하며 구조 개편의 성과를 재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카카오는 2026년 연간 연결 매출 10% 이상 성장과 영업이익률 1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올해는 카카오그룹이 성장주에 걸맞은 성장률을 보여드리기 위해 전략적 기어를 전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카카오의 대표이사로서 제 임기동안 단기적인 실적 개선을 이어가는 동시에, 주주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성장의 잠재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정신아